

조계·태고종 “대화로 분규 마침표 찍자”

봉원사문제 해결위해 ‘대책위’ 구성... 연내 마무리 ‘기대’

10여 사찰 해법도 ‘자동수순’

분규사찰인 신촌 봉원사 문제에 대해 조계종과 태고종이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3월 9일 각각 총무원회의를 열고, 양측 9인으로 신촌 봉원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대화를 재개하게 된 것은 2월 1일 대법원의 ‘조계종 명의로 토지 등기된 것을 말소하고 원래 봉원사로 환원하라’는 소유권 확인 등의 소송 판결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번 판결 후 조계종 총무원은 대화를 통해 분규사찰의 해결방안을 찾기로 하고 항소를 취하한 후 3월 4일 태고종 총무원에 대화를 제의했

다. 이에 대해 태고종 총무원은 봉원사와 의견을 조율하고 대화에 응하겠다고 회답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법안 스님은 “봉원사 문제는 빠르면 부처님 오신날 이전에 해결될 수도 있다. 늦어도 올해 안에 타결지을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봉원사 문제만 해결되면 조계종과 태고종의 10여개 분규사찰들도 봉원사에 준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 교무부장 법현 스님도 “분규를 종식하는 것이 사회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할 방침”이라며 “지금까지 봉원사와 관련한 합의에 준하겠지만 상황이 많이 변한 만큼 봉

원사와도 의견을 조율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당사자적인 신촌 봉원사주지 구해는 3월 11일 성명서를 통해 “오랜 세월동안의 교단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고 한국불교를 정상화시키는데 조계종과 태고종이 손잡고 같이 정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러한 희망에서 조계종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봉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과 태고종은 대표단을 꾸려 여러 번 만났다. 1989년에도 합의안까지 도출 △선암사는 재단법인을 설립 7대 6으로 이사를 구성 이사장은 조계종에서 맡는다 △봉원사는 5대 5로 재산을 분할 관리한다 △나머지 분규사찰은 실무대표단에서 계속 협의한다 등에 합의했다. 95년 1월 17일에도 조계종은 ‘조

계·태고 분규사찰 실무협의회’ 태고종은 ‘태고·조계 사찰분규 종식 위원회’가 구성돼 89년 합의안을 따르기로 했으나 토지처분 문제가 불거져 봉원사 사중의 반대로 결렬된 바 있다. 이후 99년 7월19일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국 스님이, 2001년 11월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만났으나 조속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현재 조계종 태고종의 분규사찰은 순천 선암사 향림사, 서울 봉원사 백련사 안양사 인천 용궁사 등 10여개이다. 분규사찰의 법적 소유권은 조계종에, 점유권은 태고종이 갖고 있어 조계-태고종간의 미묘한 현안이 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불교서울전문강당 제2기 입학식 성료 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울전문강당(운영위원장 청화) 제2기 입학식이 3월 7일 서울 건국대 명예교수실에서 열렸다. 신입생 모집에는 총 118명이 신청, 82명이 합격했으며 가섭 스님 등 중앙총무원기권 소임을 지낸 스님 62명, 이준 건국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직인인·포교사 20명이 등록했다. 사진제공=조계종 교육원

70%가 사설사암... 관리강화 법제화 어떻게?

조계종 특위, 미등록·임의처분 등 징계 근거장치 마련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 개정안이 3월 21일부터 열리는 조계종 제166회 임시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2003년 11월 기준으로 조계종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설사암 수는 총 1519곳. 조계종 사찰의 64% 정도가 사설사암인 셈이다. 2005년 3월 현재 사설사암 수는 조계종 사찰의 70%에 육박하고 인선원 명칭 앞에 ‘대한불교조계종’이란 표기를 못하도록 했다. 무관 스님은 “능선원칙이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열어 사회복지재단 정관에 종단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무관 스님에 따르면 능선원칙이 법인 정관에 조계종 종지종풍을 봉대하고, 이사 과반수를 조계종 소속 스님으로 하며, 재단을 해체할 때에는 종단에 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 빠른 시일 내 지광 스님이 총무원장 방장 스님을 예방해 잡회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외에도 거부해 왔던 종단 감사도 적극적으로 받겠다 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은 본 종에 영원히 귀속되어 있으나 종단에서 인정하는 장건주 또는 장건주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며 용어 정의부터 명확히 했다. ‘종단예의 등록’도 ‘일체의 재산과 권리를 종단으로 귀속시킴을 의미한다’며 종단 귀속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사설사암 장건주는 본인을 포함해 조계종 스님을 주지로 추천할 권한을 가지며 장건주 권리를 사자상승 할 수 있는 등 권리도 인정했다. 신도장건주일 경우 그 권한은 당대에 한정되며 이후 공화로 귀속된다. 명시적 승계 절차 없이 장건주가 임직할 경우 그 직계 1대 제자로 구성된 2인 이상의 문도회의에서 승계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장건주에게 직계 1대 제자가 없거나 장건주 스님에게 별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조계종 스님이 타 종단에 가입하거나 탈종한 경우, 종단으로부터 제적처분된 경우, 사설사암 장건주나 주지의 지위에 관해 종단의 정상적 불복 방법을 거치지 않고 종단에 대

해 사회적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화로 종단에 귀속된다. 납부되지 않은 종단 분담금이 합해 3년 이상의 납입액에 해당하는 경우도 해당교구 본사 주지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사설사암 등록은 ‘대한불교조계종 00(사암)나 해당 교구본사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기·등록을 완료해야 하도록 명시했다. 미등록 사유 소멸 없이 1년 이상 미등록 사설사암을 소유하거나 사찰 기본재산을 종단의 승인 없이 양도, 담보제공, 대여한 자, 주지추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한 자, 사찰재산 명의를 변경시킨 자, 사설사암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1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는 자 등은 승려법 제47조를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 개정안은 16일 사설사암 특위 전체회의와 법제분과위 심의를 거쳐 제166회 임시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쓰나미’ 성금 19억7천만원

조계종, 복지타운 조성 등에 사용 계획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월 11일 까지 진행된 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의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들기 성금 모금이 20여억원의 기금을 접수한 가운데 최종 마감됐다. 조계종 22개 교구본사와 현대불교 등 사찰과 언론, 신학단체, 개인 등이 동참한 이번 성금모금에는 총 19억7천2백59만5307원이 접수됐다. 이것은 통장 성금과 ARS접수로 모금된 금액으로 조계종은 기금을 스텝리망카 복지타운 건설과 ‘자비나눔기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부장 정년 스님은 “남아시아 피해민들을 돕기 위한 불자들의 성원덕분에 적지 않은 금액을 모을 수 있었다”며 “성금을 사회에 회향해 자비와 보시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만세루 등 복원키로 조계종·조불련 합의

2005년 금강산 신계사 복원 일정이 확정됐다. 조계종(총무원장 법장)

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 이하 조불련)은 3월 2일부터 4일간 전문가 회담을 진행해 올해 만세루와 산신각, 요사채, 3층석탑 등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4월부터 만세루 복원 불사를 곧바로 진행하며 이와 함께 요사채와 산신각 터 발굴조사를 병행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조만간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불사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구체적 실무 작업을 발의 예정이다. 조계종 문화사회복지 지원 스님은 “올해 복원불사는 가능한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해 명실상부한 통일 문화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9월 조계종 중앙박물관 개관 기념 북한 불교문화제 전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계종 총무원은 3일 열린 총무원회의에서 능선원 소속의 서울 서초동 건물에 대해 등록말소를 결의하고 능선원 명칭 앞에 ‘대한불교조계종’이란 표기를 못하도록 했다. 무관 스님은 “능선원칙이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열어 사회복지재단 정관에 종단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무관 스님에 따르면 능선원칙이 법인 정관에 조계종 종지종풍을 봉대하고, 이사 과반수를 조계종 소속 스님으로 하며, 재단을 해체할 때에는 종단에 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 빠른 시일 내 지광 스님이 총무원장 방장 스님을 예방해 잡회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외에도 거부해 왔던 종단 감사도 적극적으로 받겠다 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성호 스님 종정 표창패 명정 스님 총무원장 사서

진안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이 사찰불사와 지역불교 활성화에 앞장 선 공로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표창패를 받았다. 총무원장 방장 스님은 3월 11일

법전 스님을 대신해 표창패를 수여하며 성호 스님을 격려했다. 한편 같은 날 총무원장 수행사에서 명정 스님이 임명됐다. 수행사에서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명정 스님은 1995년 사미계, 99년 귀족계를 수지했다. 남동우 기자

탄우 스님 제적처리 조계종 ‘승려법’ 적용

논산 관촉사 주지 탄우 스님(조계종 중앙 종회의원)이 3월 7일 열린 총무원회의에서 제적됐다. 따라서 종회의원직도 박탈됐다. 근거는 승려

법 제54조 3항 1의 다와 2의 가. 승려법 제54조 3항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는 제적처리’로 ‘호적상 혼인 관계나 사실상 관계가 확인된 자’와 ‘입적신청에 허위가 밝혀진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속·직권제적된 것이다. 관촉사 새 주지로 태진 스님이 9일 임명됐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170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732-1522 불교쇼핑 마하물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方外之士!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인생에 정답은 없다, 나만의 길이 있을뿐 ...

직장에 얽매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만 하다가 한 세상 끝나는 것인가? 갑갑한 삶의 틀에서 빠져나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은 과연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 백수의 제약에서 무리코수까지 고정된 법과 경계선 너머의 인생을 사는 13인 방외지사들에게서 진짜 잘 사는 법을 찾는다.

MBC 뉴스에 방영된 화제의 책 출간 즉시 교보, 예스24, 알라딘 베스트셀러 진입

방외지사 1·2
 조용현 지음 (강호동양학자, 원광대학교초빙교수, 5백만 내력의 명분기이러기) (조용현의 사주명리학 이야기) 저자, 현재 조선일보에 '조용현의 삶' 연재 중
 김홍희 사진 / 각 권 9,000원

“인생에 정답은 없다, 나만의 길이 있을뿐...” 오늘의 한국 땅에서는 행복한 아사사들이더들의 인생행로를 저자의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낸 책. 『조선일보』 박해원 기자